

참 평화의 그 날까지

Until the Day of True Peace

시편 85:9-11

그리니치 한인교회

2011년 9월 11일 설교

⁹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이에 영광이 우리 땅에 거하리이다. ¹⁰공홀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 맞추었으며 ¹¹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하강하였도다.

구일일 열 돌

구일일이 난 지가 벌써 열 해가 되었습니다. 안 믿기시지요? 십년 세월에 변한 것도 있고 안 변한 것도 있습니다. 강산은 별로 안 변한 것 같고 컴퓨터 윈도우는 세 번쯤 바뀐 것 같습니다. 제 흰머리도 좀 많아졌지요? 그런데 우리 할머니들은 십년 전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안팎으로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천일 년 구월 십일일 화요일 오전이었습니다. 그 때는 우리가 제일루터교회 건물에 있을 때인데 그 교회 코피 목사가 저를 급히 불렀습니다. 달려가 보았더니 텔레비전에 맨해튼의 세계무역센터 건물이 나오는데 건물 중간쯤 구멍이 나 있고 그리 연기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건물에 충돌해 불이 났다 했습니다. 야, 대형사고구나 하면서 화면을 보고 있는데 비행기가 하나 더 날아오더니 다른 건물에 부딪혔습니다. 사고가 아니고 일부러 와 부딪친 것이었습니다. 연기가 나고 불꽃도 보이고 그러더니 사람이 하나씩 둘씩 건물에서 뛰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못 되어 건물 전체가 폭삭 주저앉는 참 엄청난 모습까지 텔레비전을 통해 보았습니다.

구일일은 알카에다라는 이슬람 과격주의 단체가 네 대의 비행기를 납치해 벌인 테러 사건입니다. 네 대 가운데 두 대는 무역센터 쌍둥이 빌딩으로 돌진했고 한 대는 펜타곤에 부딪쳤고 또 한 대는 워싱턴으로 가던 도중에 승객들과 납치범 사이에 싸움이 붙어 펜실베이니아에 그냥 추락했습니다. 이 일로 범인 열아홉 명을 포함해 약 삼천 명이 목숨을 잃었고 육천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수천 명이 죽고 다쳤다는 것만 해도 엄청난 사건이지요. 그렇지만 그 사건이 세상을 바꾸게 된 건 희생자 수가 많아서가 아니라 그 일을 일으킨 사람이 다 한 종교에 속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사건을 일으킨 열아홉 명은 다 중동에서 온 아랍 사람이고 다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비행기를 납치하고 시설을 파괴하고 또 사람을 많이 죽였기 때문에 구일일 이후 오늘까지 이슬람교는 폭력 종교라는 인상을 남겼고 이슬람 사람들은 세계 곳곳에서 폭력주의자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 살아 왔습니다. 구일일 이후 보안 검색이 무척 까다로워졌는데 아랍 사람이나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은 일단 시작부터 의심을 받습니다.

중동과 미국

이들이 공격 대상으로 삼은 건 미국입니다. 수도 워싱턴도 공격했지만 미국 경제의 심장부인 맨해튼, 그 가운데서도 미국 경제의 상징이던 세계무역센터 쌍둥이 건물을 공격해 둘 다 무너뜨렸습니다. 뜻하지 않은 공격으로 수천 명이 죽고 거대한 건물 두 개도 무너졌으니 초강대국 미국이 자존심이 많이 상했습니다.

중동 사람들이 왜 미국을 공격했습니까? 미국의 중동정책이 불공평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뭐가 그렇게 불공평했겠습니까? 아랍의 석유를 미국이 뺏어갔다는 것도 아니고 아랍 사람들에게 인종차별을 했다는 것도 아닙니다. 중동에 아랍인하고 유대인이 살고 있는데 강대국 미국이 유대인 나라인 이스라엘만 도와주고 그 나라 때문에 피해를 입은 팔레스타인 사람들, 대부분이 이슬람교를 믿는 그 사람들은 죽든 말든 상관도 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 미국을 공격한 것입니다.

중동 가장 서쪽에 팔레스타인이라 부르는 땅이 있습니다. 그 땅에 지금 유대인들이 세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고 팔레스타인 사람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은 그 나라 주변 여러 곳에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본디 그 땅에 살고 있다가 1948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생기면서 쫓겨났습니다. 피난민이 된 거지요. 지금 유엔에 등록된 팔레스타인 난민 수가 약 470만 명 정도 되는데 이백만 정도는 요단강 서안 지역 및 가자 지역의 난민촌에 살고 있고 삼백만 조금 못 되는 사람들이 요르단, 레바논, 시리아 세 나라에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생긴 이후 이 지역에서는 크고 작은 전쟁이 이어졌습니다. 중동전쟁, 또는 중동사태라 부르지요. 살고 있던 사람들을 몰아내고 나라를 세웠으니 그럴 밖에는요. 그런데 나라를 세운 사람들은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이고 쫓

겨난 사람은 대부분 이슬람교를 믿는 아랍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변의 아랍 여러 나라가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돕는다고 이스라엘하고 여러 번 전쟁을 했는데 번번이 이스라엘에게 졌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결정적인 건 세계 최고 강대국인 미국이 이스라엘을 강력하게 도와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중동사태는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사이의 싸움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돕는 미국하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돕는 아랍 여러 나라 사이의 싸움이 되어 버렸습니다.

땅 따먹기

나라와 나라 사이 또 민족과 민족 사이의 싸움이 대개 영토분쟁 아닙니까? 중동사태의 기본도 땅 싸움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땅 따먹기라는 놀이를 많이 하고 놀았는데 어른이 되고나서 보니 어른들도 땅 때문에 싸웁니다. 삶이 곧 놀이고 놀이가 곧 삶입니다. 그 때 땅따먹기를 하면서 “그래, 결론은 땅이야!” 하고 득도를 했더라면 지금쯤 제 삶이 많이 달라졌겠지요. 득도를 못 한 게 감사할 따름입니다. 팔레스타인 문제도 결국 땅을 누가 차지하느냐, 땅이 누구 것이냐 하는 건데, 문제는 땅은 그래도 있지만 주인은 계속 바뀐다는 점입니다. 팔레스타인 땅만 해도 지금은 유대인이 중심을 차지하고 아랍 사람들은 변두리로 쫓겨나 있지만, 그 전에는 아랍 사람들이 천 년도 넘게 주인 노릇을 하던 땅입니다.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을 건국하면서 그 땅은 본디 유대인 땅이라 주장했습니다. 아랍 사람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전에는 물론 유대인이 거기 살았습니다. 로마 시대 박해 때문에 유대인이 뿔뿔이 흩어지기 전까지 천 육백 년 동안 그 땅에서 살았습니다. 그럼 유대인이 거기 살기 전에는 빈 땅이었습니까? 아니지요. 팔레스타인이라는 이름의 원조인 블레셋 민족을 비롯한 여러 민족이 그 땅에 이미 살고 있었습니다. 옛날 역사를 가지고 내 땅이다 한다면 이 지구상에 싸움 안 날 땅이 어디 한 평이라도 있었습니까?

유대인들이 그 땅이 자기 것이라 우기는 또 다른 근거는 하나님이 그 땅을 유대인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성경에 그런 말이 있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영원히 준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랍 사람도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후손이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장손이니까 오히려 더 큰소리를 칠 수 있겠지요. 또 성경을 잘 풀면 그 땅은 예수 믿는 우리 땅도 됩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갈 3:7). 그래서 지금도 팔레스타인 땅의 중심인 예루살렘에서는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가 서로 제 땅이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진짜 싸우는 건 유대교하고 이슬람교입니다. 유대인하고 아랍인은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민족과 종교가 일치한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이 미국에 와 살다 보니 그런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주 예수를 위해 사는데 가끔씩 조국 생각을 하면 가슴이 울렁거립니다. 그런데 이 신앙과 애국심이 하나로 결합되어 있다면 얼마나 힘이 세겠습니까? 유대인도 아랍인도 자기들이 가진 신앙하고 자기 민족하고 똑같이 때문에 힘이 대단하지요. 그런데 이스라엘하고 아랍이 여러 번 싸웠는데 번번이 이스라엘이 이긴 걸 보면 유대인의 힘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이천 년 가까운 세월을 나라 없이 떠돌며 고생하다가 제 나라를 가졌으니 목숨을 바쳐서라도 지키고 싶지 않겠습니까?

미국의 지원

그렇지만 이스라엘이 혼자 힘으로 그렇게 버틴 건 아닙니다. 남의 도움을 받았는데 바로 미국, 제이차 세계대전 이후 소련과 더불어 세계를 이끌어온 강대국 미국이 전폭적으로 이스라엘을 지원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지금도 그렇게 버티고 있는 겁니다. 미국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도왔을까요? 잘은 모르지만 제가 미국에 오기 전 한국에서 재미있는 통계를 하나 보았습니다. 스무 해 전이니까 지금은 좀 달라졌을 수도 있겠지만 미국이 외국에 얼마나 원조를 해 주었는지 액수를 적은 통계였는데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두 번째고 바로 그 위에 미국의 원조를 가장 많이 받은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인구가 많이 는 다음에도 대한민국의 십분의 일밖에 안 됩니다. 그런 나라에 대한민국에 준 것보다 더 주었으니 얼마나 주었는지 짐작이 되지요? 돈도 주고 무기도 주고 세계 여러 나라 다니면서 이스라엘을 잘 봐 주라고 압력까지 넣고 다녔습니다.

미국이 왜 그랬겠습니까? 그것도 우선은 유대인의 힘이겠지요. 유대인이 이 미국에 이민을 와 자리 잡은 지가 꽤 되는데 오래 전부터 미국 사는 유대인의 가장 큰 꿈은 상원의원이 되는 거였다고 합니다. 왜 상원의원이겠습니까? 미국의 대외 정책을 결정하는 곳이 상원이기 때문에 상원의원이 되어 내 민족의 나라 이스라엘을 도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지요. 그래서 그런지 지금 미국 정치인 가운데 유대인이 정말 많습니다. 상원, 하원에 수두룩하고 장관 차관도 많고 백악관에도 많고 각 주마다 중요한 자리에 많이들 앉아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도 미국에서 힘을 가지면 아무래도 조국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유대인도 마찬가지지요.

지금 유대인은 이 미국의 거의 모든 분야를 아예 장악했다 할 정도로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정치도 그렇지만

역만장자에도 유대인이 수도 없이 많지요, 법률, 의료, 학술, 영화, 텔레비전, 신문, 하여간 어느 것 하나 유대인의 힘이 안 미치는 곳이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 유대인의 힘이 아직 덜 미치는 곳이 딱 세 곳이 있습니다. 교회, 세탁소, 네일가게입니다. 이 세 분야에서는 우리 한국사람 힘이 더 세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유대인은 정치적인 힘도 이용하고 열심히 번 돈은 이스라엘을 돕는 여러 단체에 기부하면서 자기가 속한 여러 분야에서 알게 모르게 제 민족의 나라 이스라엘을 위해 일을 합니다.

복음주의

그런데 유대인이 그런 노력을 하기 전부터 사실 이 미국은 유대인 편, 이스라엘 편이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 미국의 주류가 어떤 사람입니까? 개신교인. 특히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복음주의 그리스도인입니다.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을 도우라고 로비하기 전에 복음주의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이스라엘을 도우려고 발 벗고 나섰습니다.

한때 대통령에 출마하려고 했던 팻 로버트슨이라는 목사가 있습니다. 방송국을 비롯해 기독교 관련 사업도 많이 하고 버지니아비치에 있는 리전트 대학도 설립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몇 해 전에 이스라엘에 가서 한 연설을 보면 미국 복음주의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스라엘을 옹호하는지 잘 나와 있습니다. 요지는 간단합니다. 구약성경을 문자 그대로 인용하면서 지금도 유대인을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라 했고 특별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건국이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에스겔의 예언을 여러 곳 인용해 놓았는데 보기를 하나 들면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서..... 내가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하신 구절입니다 (겔 36:24, 28).

그 예언은 사실 이스라엘이 바빌로니아에 포로로 잡혀가겠지만 머지않아 다시 본토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떠나 마귀의 노예가 되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 나라에 살게 될 것이라는 새 언약의 말씀입니다. 인용된 구절 가운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령을 주마 약속하신 말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여 영화롭게 되신 다음 아버지 하나님에게서 받아 우리에게 주시는 영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을 지금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입니까? 유대인이 주축이 된 나라입니다. 어떤 유대인입니까? 예수를 안 믿는 유대인입니다. 하나님이 예덴동산에서 구원자 메시아를 약속하셨는데 그 메시아를 수천 년 기다려 놓고도 정작 오셨을 때는 거부해 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는 그 메시아를 십자가에 달아 죽이고 그 죽인 죄를 달게 받겠다고 큰소리까지 친 민족입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가서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을 우리도 믿는다, 우리가 섬기는 분도 알고 보면 유대인이다, 그 분의 제자도 다 유대인이었다 하면서 정말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면에서 참 소중한 나라입니다. 대부분 국가가 전제정치를 하고 있는 아랍 지역 한 가운데 자리 잡은 유일한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 점은 참 귀합니다.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귀하게 여기고, 법과 질서를 존중하고, 개방된 사회를 이루었다는 점에서는 이 미국이 동맹으로 삼고 적극 돕는 게 마땅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신 구원과 회복의 약속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재건으로 성취되었다 하면서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것은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모조리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건 무지도 아니고 오해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욕보이는 무서운 죄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는 사람이, 게다가 그런 구원의 진리를 설교까지 한다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세대주의

세대주의라는 사상도 영향을 꽤 미쳤습니다. 세대주의가 뭔지 그건 다음에 기회가 되면 보겠습니다만 세대주의자들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진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중요한 사건이라고 봅니다. 그 나라가 세워지면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 온 국민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것이기 때문에 그 나라는 망해서는 안 되고 계속 있어야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미국이 이스라엘을 적극 도와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런 대대적인 회개가 정말 일어난다면 참 대단하겠지요? 그런데 세대주의자들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질 것이라는 사실을 성경 어디에서 찾느냐 하면 예수께서 말씀하신 종말에 관한 예언입니다. “무화과나무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것처럼 내가 말한 이 모든 일이 일어나면 내가 가까이 온 줄 알아라” 하셨습니다 (마 24:32-33). 그런데 세대주의자들은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키고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는 건 되살아난다는 뜻이니까 이천 년 동안 나라가 없던 이스라엘이 제 나라를 갖게 된 것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이 사건이라 주장합

니다.

무화과나무는 예수님이 그냥 보기로 드신 겁니다. 나무가 부드러워지고 잎이 나면 여름이 된 줄 알지 않느냐? 그와 마찬가지로 내가 말한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면 내가 가까운 줄 알아라 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냥 보기로 드신 걸 갖고 이스라엘을 상징한다 어쩌다 하는 것 자체가 엉터리입니다.

말이 같다고 뜻이 같은 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유대인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니까 우리하고 같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팻 로버트슨은 성경을 읽되 눈에 수건을 가리고 읽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수건이 벗겨진다는데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수건은 그대로 쓰고 있으니 예수가 엉터리거나 로버트슨이 엉터리거나 둘 가운데 하나겠지요 (고후 3:13-17).

정의와 평화

이스라엘을 돕지 말자는 말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엉터리 이유로 돕지 말고 제대로 된 이유를 찾아 돕자는 겁니다. 유대인은 제 나라가 없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나라가 생겨 부당한 고생을 안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게다가 이슬람교가 장악하는 지역마다 정치와 사회가 팍 막혀 버리는데 그 한 가운데 이스라엘처럼 열린 나라가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은 인류의 앞날을 위해서도 좋은 일입니다. 이슬람이라는 종교도 정교일치 원리가 사실 무서운 원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스라엘의 생존을 위해 희생당하고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똑같이 챙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약한 사람 편에 서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무슬림이라고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높은 산은 낮아지고 낮은 골짜기는 메워져 평탄하게 될 거라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신 일이요 주님을 따르는 우리가 할 일입니다. 강한 사람은 안 도와도 됩니다. 강한 사람에게 당하는 약한 사람을 도와야 합니다.

주 예수를 믿는 우리는 평화를 위해 부름 받았습시다. 그런데 싸우지 않는 게 무조건 평화는 아닙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누르고 있을 때도 겉으로는 조용합니다. 그렇지만 그건 평화가 아닙니다. 평화는 언제나 정의와 함께 오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대로 의와 화평이 입 맞추는 그게 진짜 평화입니다.

유대인이 약자일 때는 그리스도인이 유대인을 도왔습니다. 히틀러가 등장해 유대인을 말살하려 할 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유대인을 집에 숨겨주었습니다. 본회퍼 같은 신학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기 위해 히틀러를 암살하는 조직을 만들었다가 붙잡혀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유대인이 강합니다. 권력도 돈도 명예도 다 가졌습니다. 팔레스타인 사람은 아무 힘이 없습니다. 수십 년 동안 제 나라도 없이 이스라엘의 통치를 받으면서 수용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늘 전쟁상태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땅 따먹기를 했는데 그곳 꼬마들은 자살폭탄 놀이를 한다고 합니다. 노는 게 사는 거고 사는 게 노는 거라면 이 아이들이 커서 뭘 할 건지 벌써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독립선언을 하기 전에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으로 대거 몰려들어 갈등이 점점 커지자 유엔에서 그 지역을 유대인 나라와 팔레스타인 나라 두 개로 독립을 시키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은 독립을 선언했지만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반대했습니다. 유대인의 나라 자체를 인정하지 않은 거지요. 그래서 아랍 여러 나라가 이스라엘을 없애려고 전쟁도 했지만 지금은 세월이 많이 흘러 아랍 대부분의 나라가 이스라엘을 국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남은 과제는 팔레스타인 나라를 세우는 일입니다. 유엔도 지지하고 반기문 사무총장도 지지하고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지지하는데도 이 미국이 뒷짐을 지고 있으니 안 됩니다.

유대인 정착촌도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팔레스타인 난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유대인을 이주시켜 마을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착촌에 살고 있는 유대인이 지금 수십만 명입니다. 전 세계가 반대하고 심지어 이스라엘을 전폭 지지하는 이 미국조차도 하지 말라고 말리는데 이스라엘 정부는 들은 척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의 독립이 더 늦어지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이 독립을 하려고 하면 이스라엘이 정착촌에 사는 유대인들을 어떻게 할 거냐 하면서 시비를 걸겠지요. 또 팔레스타인 국가의 탄생을 계기로 정착촌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쫓겨나오게 되면 거 바라 하면서, 이스라엘이 생길 때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쫓겨난 거냐 팔레스타인 국가가 생길 때 유대인이 쫓겨난 거냐 그게 그거 아니냐 하며 맞불을 지르겠지요.

평화를 위하여

구일일이 나고 십 년이 지났는데 테러와의 싸움은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중동의 두 나라에서는 이 미국이 주도하는 전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게 작전이 성공해서 테러리스트가 다 사라질 수만 있다면 얼마

나 좋겠습니까 마는 그러리라고 믿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테러는 막아야지요. 최대한 막아야 됩니다. 구일일 같은 사태가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테러 자체를 막는 일 못지않게 평화를 심는 일, 그리고 참 평화를 위해 필요한 정의를 심는 일도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팔레스타인에 참 평화를 심자면 이스라엘이 주변 아랍 나라들과 사이 좋게 지내도록 도와야 되겠고 또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열린 나라를 만들어 사람답게 살도록 도와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이민생활에 바쁜 우리가 중동에 가볼 기회나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부터 해야 되겠지요. 내가 먼저 평화를 실천해야 되는데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또 사람을 만날 때마다 노력을 해야 됩니다. 부부사이든 부모자녀 사이든 한 번 시도해 보면 평화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정의를 이루면서 평화를 심는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 수 있을 겁니다.

결국 우리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복음을 열심히 전해야 되겠구나 하는 게 됩니다. 다른 게 뭐가 있겠습니까? 복음 전도가 평화를 심는 출발점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실 때 하늘과 땅이 만나는데 땅과 하늘이 만날 때 진리와 의가 이루어집니다. 팻 로버트슨이 이스라엘까지 가서 연설을 할 때 그 사람들 기분 좋게 하는 소리를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면서 나는 내 이웃에게 주 예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 얼마나 말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그 은혜를 먼저 받은 나는 내 삶에서 얼마나 아름다운 평화를 이루고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구일일 열 돌을 맞으면서 구일일 때 희생된 사람들도 생각하고 아직도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도 위로해야 되겠고 특히 다른 사람을 구하러 갔다가 희생된 분들의 송고한 뜻도 새겨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난 일만 생각하지 말고 앞을 바라보아야 되겠습니다. 더 이상 그런 테러를 못 하게 막아야지요. 또 이제는 그런 테러 안 해도 되는 세상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참 생각할 것이 많은 날입니다. 많이 생각하고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더욱 입어 내가 사는 자리에서 작은 평화를 이루어 갈 수 있다면 끔찍한 비극의 날 구일일이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복과 은혜의 출발점이 될 줄 믿습니다. (권수경 목사)